

# 대전시 생애주기 **성평등** 교육 현안 분석



주혜진 · 이유라 · 김다영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b>연구책임</b>	• 주혜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b>공동연구</b>	• 이유라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 김다영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b>연구지원</b>	• 조명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조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보고서

대전시 생애주기 성평등 교육 현안 분석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49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차 례

1장 서론 .....	3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2. 연구 방법과 수행 절차 .....	5
1) 연구 방법 .....	5
2) 연구 수행 절차 .....	6
2장 이론적 논의 .....	9
1. 생애주기의 의미와 단계 구분 .....	9
1) 생애주기의 개념과 중요성 .....	9
2) 생애단계의 구분 .....	10
2. 성평등 교육의 이해 .....	12
1) 성평등 교육의 의미와 범위 .....	12
2)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	15
3. 성평등 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8
3장 성평등 의식교육의 법과 정책 환경 .....	23
1. 성평등 의식교육 관련 법과 조례 .....	23
2. 성평등 의식교육 관련 계획 .....	28
1) 여성가족부 .....	28
2) 교육부·교육청 .....	29
3) 대전광역시 .....	31
4장 교육 공급자 심층면접 사례 분석 .....	35
1. 조사 개요 .....	35
2. 조사 결과 분석 .....	37
1) 대상별 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	37
2) 성평등 교육 강의안 .....	45
3) 성평등 교육의 과제 .....	48
4) 성평등 교육 개선사항 .....	55

5장 성평등 교육 개선방안 .....	63
1. 학령기 대상 성평등 의식 및 교육 수요 조사 실시 .....	63
2. 성평등 교육 참여 주체와 대상 다양화 .....	63
1) 우수 교구교안 공모전 및 대회 개최 .....	63
2) 청소년 성평등 동아리 운영 지원 .....	64
3) 주민공동체 대상 교육집단 발굴 및 성평등 교육 실시 .....	65
3. 성평등 교육 공급 서비스 향상 지원 .....	66
1)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66
2) 성평등 학습연구회 운영 지원 .....	66
3) 2030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	67
4. 성평등 교육 공급 체계 개선 .....	69
1) 영유아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구 도서관 운영 .....	69
2) 성평등 교육 신청 양식 개발과 보급 .....	70
참고문헌 .....	72

## 표 차례

[표 2-1]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대한 학자들의 구분 .....	10
[표 2-2] 연구를 위한 생애단계 구분 .....	11
[표 2-3] 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정의 .....	13
[표 3-1]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	23
[표 3-2]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	24
[표 3-3]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	24
[표 3-4] 『교육기본법』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	25
[표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	25
[표 3-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	26
[표 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	27
[표 3-8] 『아동복지법』의 성평등 관련 교육 추진 근거 .....	27
[표 4-1] 조사 참여 사례 특성 .....	35
[표 4-2] 조사 개요 .....	36
[표 4-3] 조사 내용 .....	36
[표 5-1] 성평등 교육 강의의뢰서(샘플) .....	71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	6
[그림 2-1] 성평등 교육 재구조화 방향 .....	14
[그림 3-1]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양성평등교육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	30
[그림 3-2] 대전광역시 2020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32
[그림 5-1]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2030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	68
[그림 5-2] 경남 수학문화원 수학교육 교구 대여 운영 사이트 .....	70





#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수행 절차



# 1장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연구 배경

-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성 불평등,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제도와 실천으로 반영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5년 9월 UN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의 추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으며, 17개 주요 목표 안에 5번째로 성평등 목표를 명시하고, 169개 세부목표와도 연계·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 가치가 중요해졌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사업주의 예방 교육 의무가 명시되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는 등 법의 제정과 정비, 제도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성평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성과를 이뤄냄
- 2011년부터 매년 측정 가능한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함. 나아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시함
- 그러나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미투(Metoo), 2019년 버닝썬 사건을 통해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권한 차이, 젠더 편견에 기반한 관행과 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 및 성 상품화 등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남
  -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 불평등, 성차별, 성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제도 및 정책적 변화에 비해 성평등 의식의 변화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지속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임수정, 2017)
- 교육은 사회의 구조와 모습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에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는지 중요함(민무숙, 2018)
  - 평등이 ‘똑같음’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서 성취될 수 있음을 어린 시절부터 체현하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이나영, 2018)

- 특히,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의 9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공인된 교육의 장으로 그 안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성평등한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이나영 외, 2020)
-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를 개정함으로써 예방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성평등 교육이 공식 교육으로 자리 잡아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평등 의식과 실천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옴(엄혜진 외, 2019)
- 성평등 교육이 성 주류화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의무교육의 범위 확대, 교육의 질 제고, 실효성 확보,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2월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총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
  - 공교육으로서 학교가 가진 영향력,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청소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함(이나영 외, 2020)
- 실질적이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대상별 성평등 교육에 대한 검토와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모색이 필요함
-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생애주기별에 따라 교육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2) 연구 목적

-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의 추진 체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상별 교육 현황 및 실태, 문제점, 개선점 파악, 우선순위 과제 도출, 주요 제안사항 제시
- 추후 교육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질을 제고,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연구 방법과 수행 절차

### 1)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의 단계별 특성 파악 및 범위 설정을 위해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함
-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게 명시한 법과 정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법률, 행정자료, 정책자료 등을 살펴봄
- 또한 성평등 교육의 정의와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생애주기별 교육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함

#### (2) 전문가 면접조사 및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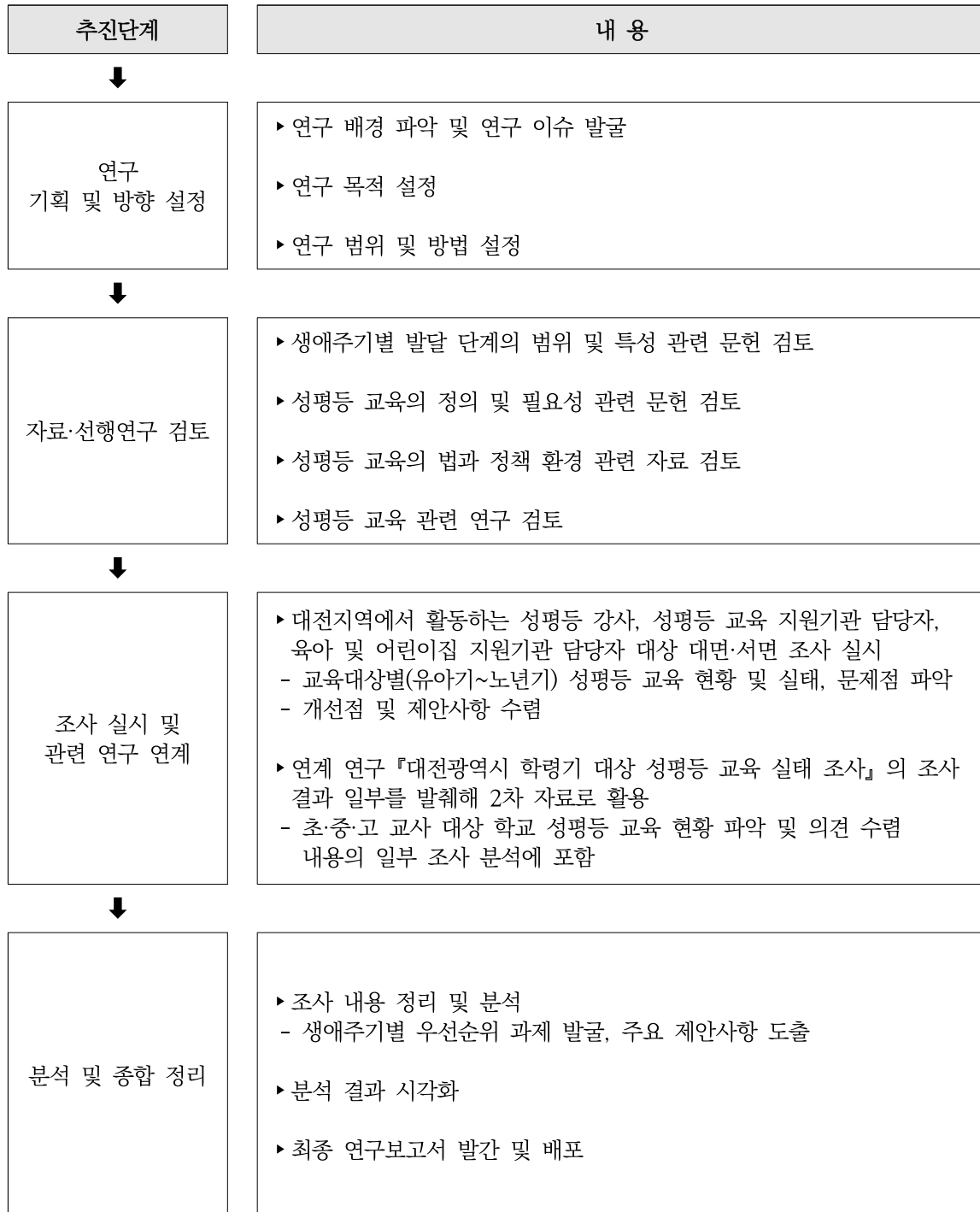
-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성평등 강사,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 담당자,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현황과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기/중·장기적 개선점과 제안 사항 등 의견 수렴
- 심층면접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우선순위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제안사항 도출함

#### (3) 관련 연구 연계 및 2차 자료 활용

- 생애주기별 성평등 인식 확산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 연구인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 조사 결과 활용함
  - 학령기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함
  - 이를 통해 도출된 조사 내용 일부를 2차 자료로 분석에 포함

## 2) 연구 수행 절차

○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 이론적 논의

1. 생애주기의 의미와 단계 구분
2. 성평등 교육의 이해
3. 성평등 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장 이론적 논의

### 1. 생애주기의 의미와 단계 구분

#### 1) 생애주기의 개념과 중요성

- 인간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놓여있음. 발달은 생애 전체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 생애주기란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발달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의미하며, 나이가 들어가는 일정한 순서의 진행에 의해 변화되는 시간적 연속을 말함(윤소영, 2010)
  - 생애주기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를 구분하는데 사용되어짐
  - 개인의 발달은 점진적이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이를 주요 지표로 활용함(박소연 외, 2018)
- 종래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발달은 성인이 되는 과정, 즉 어떤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날 발달의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성인과 노인의 발달도 청소년의 발달과 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생애발달이라는 개념이 나타남(이희수 외, 2002)
- 인간의 삶은 교육(학습), 노동(일), 여가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주요 과업이 결정되는 발달 단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청소년기에는 교육, 중·장년기에는 노동, 노년기에는 여가가 중심이 되는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음(윤소영 외, 2009)
- 그러나 최근 전 생애에 걸쳐 노동과 교육, 여가가 동등하게 중요시되는 연령 통합적 사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생애주기에 걸쳐 일, 여가,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정경희, 2004)
  - 즉, 개인의 삶은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적인 것으로 전 생애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생애주기 단계별 특징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생애주기의 개념은 ‘교육’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성평등 교육 또한 각 생애주기별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별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 있음

## 2) 생애단계의 구분

-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에 적합한 생애주기 단계 설정을 위해 학자들은 생애주기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접근하는지 검토하고자 함
-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아동기를 거쳐 노년기로 향하는 생애주기 양상과 이를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연구의 목적과 학자의 관점에 따라 생애주기를 몇 단계로 나눌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윤소영 외, 2009; 윤소영, 2010; 이희수 외, 2002)
- 발달 단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대한 학자들의 구분

단계 학자	Erikson (1963)	Havighurst (1982)	Levinson (1978)	Newman (1988)	Wortley와 Amatea(1982)
구분	유아기 (출생~1세)	유아기 (출생~5세)	아동기·청년기 (3~17세)	유아기 (출생~2세)	집을 떠나 어른의 세계로 진입한다 (20~30세) 부리를 내리고, 확대한다 (30~40세) 중년의 생활변화 (40~50세) 안정 (50~60세) 성숙·은퇴 (60~70세) 인생의 회고, 장래의 문제 (70세 이상)
	초기아동기 (1~3세)			보행기 (2~4세)	
	후기아동기 (3~6세)			유치원기 (5~7세)	
	학령기 (6~13세)	아동기 (8~12세)			
	청소년기 (13~20세)	청년전기 (13~17세)			
	청년기 (21~40세)	청년기 (13~18세)	성인예의 과도기 (17~22세)	청년후기 (18~22세)	
		성인기 (19~29세)	성인전기 (22~40세)	성인전기 (23~34세)	
	성인기 (41~60세)	중년기 (30~60세)	중년예의 과도기 (40~45세)	성인중기 (35~60세)	
			중년기 (45~60세)		
	노년기 (60세 이상)	노년기 (61세 이상)	노년예의 과도기 (60~65세)	성인후기 (61세 이상)	
노년기 (65세 이상)					

자료: 박소연 외(2018),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이희수 외(2002),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실태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 기초통계 자료 확보 방안 연구  
 최운실 외(2003), 생애단계에 따른 평생교육 체제 모델 탐색

- 우리나라는 법·제도, 정책기관에 따라 특정 생애단계별 연령을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음
  - 영아유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
  - 교육부에서는 ‘초등학령기’를 8~13세로 지정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
  - 노인복지법의 제26조(경로우대)에 따르면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
  - 기초연금법에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
  - 통계청(2013)은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기(0~19세), 성인기(20~64세), 노년기(65세 이상)의 대분류 3단계로 나누고, 이를 세분화하여 다시 영·유아기(출생 후~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9세), 청년기(20~29세), 장년기(30~49세), 중년기(50~64세), 노년기(65~84세), 초고령기(85세 이상)의 8단계로 구분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상별 2012년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작한 보고서에서 유아기(0~6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2세~19세), 청년기(19~30세), 성인기(30~60세), 노인기(60세 이상) 등 6단계로 구분함
- 법이나 제도, 정책에서 ‘유아동’, ‘청소년’은 해당 학령기를 기준으로 생애단계가 공통적으로 분류되나 20대 이상의 성인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교육 제도 및 사업을 발굴·운영함에 있어 학교 교육의 시기를 지나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어지는 30대 이상부터는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직무현장이나 역할 따라 분류하고 있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20년 개발한 『맥락적 성인지 교육 콘텐츠』에서는 교육 대상을 영유아·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청년, 성인기(직무현장별 분류)1)로 구분함
- 연구를 위한 생애단계는 법적, 제도적 연령 기준 및 연구조사 수행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아래의 [표 2-2]와 같이 범주화 함

[표 2-2] 연구를 위한 생애단계 구분

생애단계	범주
유아기	취학 전 만 5세까지
아동기	초등학교 취학해 있는 만 6세~11세 사이
청소년기	주로 중등학교 취학 기간에 있는 10대
성인기	20대 이상

1) 양육자, 지역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사, 교수, 경찰, 군인, 법조인, 방송·언론,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 과학기술, 청소년 분야, 민간기업, 전문강사

## 2. 성평등 교육의 이해

### 1) 성평등 교육의 의미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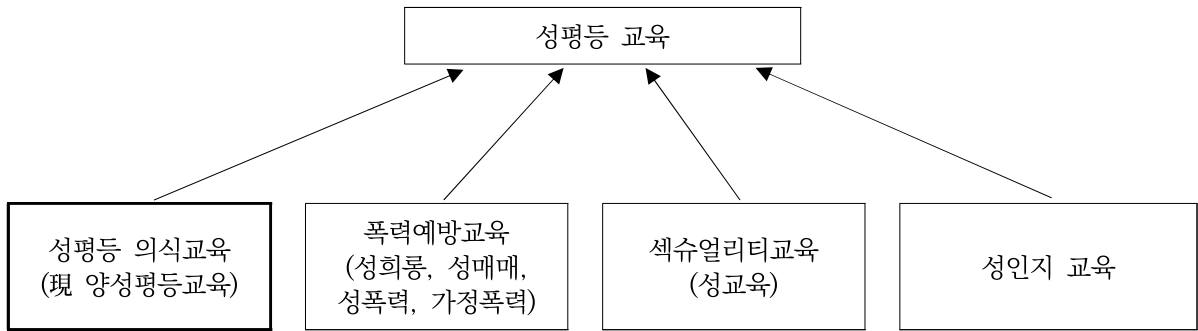
- 교육과 성 불평등을 연결시키는 연구들은 크게 보아 ‘성평등한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과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성평등한 교육’이 교육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평가하고 제거하는 것이라면,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은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함(배유경, 2015)
- 본 연구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후자의 ‘성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통칭하고자 함
- 성평등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이 필수 전제 조건이며,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성평등 교육임(임수정 외, 2016)
- 새로운 젠더 관계와 젠더 질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성평등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조자경, 2017)
-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전략인 성평등 교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함
- 현행 법과 정책에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으로, 세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마다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성평등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과 정책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별 차이를 떠나 인간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홍선영 외, 2012)
  - 김재인 외(2006)는 ‘남녀평등’, ‘양성평등’, ‘성평등’이 혼용되고 있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발전적 의미로 ‘성평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함
-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그 이유로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성(sex),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성(gender)에 의한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 해소하고 평등을 도모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들고 있음(민무숙 외, 2006; 주혜진 2013)
- 본 연구는 성별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한 관행과 제도 등이 개선된 상태를 ‘성평등’이라고(주혜진, 2013)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함
- 선행연구에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성평등 교육’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범위도 함께 검토함
- 기존 연구에서 정의된 다양한 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3] 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정의

선행연구	정의 및 범위
김선희 외 (2010)	성평등 교육이란 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든 교육으로서 성인지력 향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함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2012)	양성평등교육이란 여성과 남성 등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임
홍선영 외 (2012)	성평등 교육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性)을 고려하고,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성에 의해 취약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식의 전환을 추구함.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게 하여 양성외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차별, 폭력, 소외, 편견을 해소하고 평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내용에 있어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함
정해숙 외 (2013)	양성평등교육이란 이성관계, 가족, 직장, 일상생활 등 사회제도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임
주혜진 (2013)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관행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성평등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식을 획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자신의 삶과 일, 주변 공간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교육임. 따라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교육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성(性, Gender)과 관련한 사회문제 예방 교육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를 가짐
배유경 (2015)	양성평등교육은 의식교육이나 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임
이화진 (2018)	성평등 교육은 여성과 남성, 혹은 다양한 성에 기반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도록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교육이나 폭력예방 교육,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인권 교육 등을 포괄함
최윤정 외(2019a)	성평등 교육은 성평등한 의식과 가치관, 태도를 함양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 형태로, 교육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념이자, 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며 성평등 가치를 강조하는 모든 형태의 젠더 관련 교육으로 규정함

- 성평등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성평등 교육이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性)을 고려하고,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성(性)에 의해 취약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식의 전환을 추구(홍미영 외, 2010)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음
-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평등 교육’을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의식교육,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범위를 설정하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최윤정 외(2019a)의 연구에서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성평등 교육의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 재정비 방안 및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2-1] 성평등 교육 재구조화 방향

출처: 최윤정 외(2019a),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P.272, 재구성.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평등 교육은 성 불평등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으로 보고 건강한 성 문화와 평등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지식, 실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역할, 관계 등을 교육함으로써 성평등 의식 함양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성평등 교육의 범위에는 대체로 기존의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의식교육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관련 교육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각 교육별로 근거법 및 추진내용이 모두 상이함
  -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폭력예방교육과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있음. 더불어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이 행해지고 있음 (조자경, 2017; 최윤정 외, 2019a)
- 성평등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교육들이 파편화 되어져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는 의무 대상기관으로 기관별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up>2)</sup>을 통해 공표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0)
  - 성교육은 학교 교육에 한정되지만, 학교보건법 제9조에 근거 조항이 있고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은 별도의 연계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교육은 전체 공무원 대상 의무 교육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된 반면, 양성평등교육은 의무 규정이 없고, 대상 범위도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넓어 현실적으로 강력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최윤정 외, 2019)
- 법적 의무 교육 여부, 시행 주체 등 추진의 형태와 모양새는 각기 다르지만 모든 성평등 관련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의식 제고'에 있음

2)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교육마다 적용 대상 및 내용의 범위와 추진 근거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평등 의식과 가치 등 젠더 관점의 주제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조영주 외, 2018; 최운정, 2019a)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법과 제도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비의무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살펴보고, 의무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과 공무원 대상 성인지 정책 교육, 학교 중심의 성교육의 틀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평등 의식교육’에 국한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가 채택됨
  - 행동강령에는 세계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성 주류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성 인지적 관점을 갖추기 위한 양성평등 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모든 제도와 법, 전반적인 생활양식에 스며든 성 불평등한 관계에 주목하는 성 주류화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교육’에서 이루어짐
  - 다양한 대상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성 주류화 확산을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공공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과 더불어 시민 사회의 성 주류화 확산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주혜진, 2013)
- 우리나라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1999년부터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교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 학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김선희 외, 2010)
  -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음
- 이화진(2018)은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여성폭력’ 등 세 가지 이슈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인권의식 수준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첫 번째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이분법적인 구분을 함으로써 차별로 위계화 되었으며, 나아가 성행위에 있어서도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고착화하게 되고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폭력통념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유발 통념까지 형성함(이화진, 2018)
  - 두 번째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는 남성은 임금노동, 여성은 가정 내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산업 예비군 즉 2차적 노동자로 존재하게 하여 여성의 근로활동을 가장의 생계비가 아닌 부업으로 인식하여 여성의 저임금과 남성보다 우선적인 해고에 정당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음(이화진, 2018)

- 세 번째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하여야만 배려와 존중, 소통이라는 폭력예방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성역할과 권력관계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폭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이화진, 2018; 조자경, 2017)
- 현재 성평등 교육이 성폭력 예방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저항과 반감, 여성혐오, 학교 성폭력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 예방교육으로 축소된 성평등 교육을 성차별과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조자경, 2017)
- 성별 불평등 문제는 한 세대 혹은 한 개인의 문제가 후대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이 필요함(이수연 외, 2014; 정해숙 외, 20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2)
- 대상별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짚어보고자 함
  - 김송이(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영유아기부터 갖기 시작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보이는 행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부터 가능하면 성평등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젠더 관련 교육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이 정립하고, 페미니즘 교육과의 연계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에서 성평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조영주 외, 2018; 최윤정 외, 2019b)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상수 외(2012)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커가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어지고 있으며, 성평등 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성평등 실천을 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모두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이 높았으며, 그 격차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벌어지고 있다고 나타남. 따라서 양성평등교육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안상수 외, 2012)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은 주로 ‘교사’와 ‘학부모’,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피력한 연구가 다수임
    - 안상수 외(201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가장 첫 번째를 학부모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교사인 스스로를 지목함으로써 교사들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 김송이(2019)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은 높은 편이 아니며, 따라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기함
    -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유아 부모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은(19.0%)로 낮았고 반면, 성평등 교육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또한 가정에서 성평등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로 ‘부모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비중(14.7%)이 높은 것으로 비추어 부모의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성평등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김송이, 2019)

- 안상수 외(2011)는 대학생들의 성인지 민감성을 높이고 어떠한 과정으로 성별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함
  - 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 임용 과정 실시되는 교육 안에 성인지 감수성이나 다양한 성차별과 성 불평등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함
- 생애주기에 따라 바람직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성차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 국가수준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2)

### 3. 성평등 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성평등 교육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음
  - 하나는 '성평등 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또 다른 하나는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과 관련된 연구임
-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진행된 선행연구로 두 편이 탐색 가능함
  - 주혜진(2013)은 대전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 현황과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현황을 파악했으며, 지역 안에서 성평등 교육 강사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 교육 운영 및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방안을 모색했음
  - 주혜진(2014)은 전지역 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강사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프로그램 도출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함
- 이상의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 두 편은 성평등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타 지역 및 기관의 관련 연구를 검토함
- 우선 '성평등 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함
  - 최윤정 외(2019a)는 성차별적인 학생 문화 및 학교 풍토, 학교의 성평등 교육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초·중등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함. 나아가 성평등한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초·중등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함
  - 김화진(2018)은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문제점 파악 및 교육 사업의 개선 방안 모색하기 위해 지역 내 학교, 주요 기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실태 및 현황을 조사 및 분석했으며, 교육 수요자, 관련 기관 종사자, 사업 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
  - 조자경(2017)은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성평등 교육 정책 및 현황, 특히 학교 현장의 성평등 교육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평등스쿨 운영 측면과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방향을 제안함
  - 민무숙 외(2005)는 한국의 양성평등교육 정책과 법안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추출하는 동시에 양성평등교육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평등교육촉진법안(가칭)의 내용을 제안함
-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과 관련해 검토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음
  - 조윤진 외(2017)는 충남 성평등 교육 표준안 개발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체계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유형화 및 중요도를 조사하고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별로 강의계획 기본안을 개발했으며, 성평등 교육 표준안의 활용 방안을 제안함

- 임수정(2016)은 광주 지역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 및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 요구 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광주여성재단에서 실시해 온 성인지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반영해 성평등 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기본 모듈을 마련함
  - 임수정(2017)은 위의 『2016년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고서』의 후속 작업으로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위한 표준강의안을 개발함
  - 홍선영 외(2012)는 부산지역 기관 및 단체의 성평등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들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평등 교육 체계 및 프로그램을 재구성했으며, 체계적인 강의안을 개발함
  - 김진화 외(2006)는 부산지역 양성평등교육의 잠재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및 양성평등 관련된 기초 지식을 조사·분석하고 영역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프로파일을 설계하고 예시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계획을 수립함. 이를 통해 부산 지역의 양성평등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함
  - 황창연 외(2006)는 대학생 및 성인의 성별, 생애주기별, 기타 집단특성별 양성평등 의식 실태를 분석하고, 심층 면담조사를 통해 교육 요구를 파악했으며, 대학생 및 청년기(20~30대), 중년기(40~50대)로 구분하여 각종 성인 교육 기관 및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방안을 제시함
- 이외에 기타 관련 연구로 양성평등교육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쟁점 및 과제를 도출한 배유경(2015)의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음







## 성평등 의식교육의 법과 정책 환경

1. 성평등 의식교육 관련 법과 조례
2. 성평등 의식교육 관련 계획



# 3장 성평등 의식교육의 법과 정책 환경

## 1. 성평등 의식교육 관련 법과 조례

- 성평등 의식교육의 법률적 토대로 우선 『양성평등기본법』을 들 수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과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시행령에 성인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두고 있음

[표 3-1]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기본법	제18조 (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양성평등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생애주기별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표 3-2]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2조 (시의 책무)	②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양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생애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공직 생애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등 직급별 직위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교육)	① 시장은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문화조성교육사업 2.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대전시의 5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기초자치단체가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미미하게 차이가 있지만 가정과 학교, 평생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표 3-3]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32호, 2019. 5. 15., 일부개정)	제9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72호, 2018. 10. 15., 일부개정)	제14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4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16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② 구청장은 주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45호, 2015. 12. 18., 전부개정)	제8조 (성인지 예산 등)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표 3-4] 『교육기본법』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법률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li> </ul>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 폭력예방교육들의 법적 규정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평등 인식, 혹은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li> </ul>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li> <li>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li> <li>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li> </ol> </li> </ul>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성인지 관점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3-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성평등 관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평등 의식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 유아동 대상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탐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짚어봄. 제31조 1항 1호에 안전에 대한 교육 중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교육기준을 시행령 제28조 1항(별표 6)에 정해둬
-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내 몸의 소중함, ② 내 몸의 정확한 명칭, ③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④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등 네 가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한편 성평등 의식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음

**[표 3-8] 『아동복지법』 성평등 관련 교육 추진 근거**

구분	내용
법률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시행령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

## 2. 성평등 의식교육 관련 계획

- 성평등 교육에 포괄되는 관련 교육들의 정책은 기관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성평등 의식교육에 해당되는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 양성평등교육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크게 ‘양성평등 의식교육’, ‘여성폭력 예방교육’,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기본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드시 포함, 담당교사 지정, 실시 현황 점검 등 필수로 행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성평등 의식에 관한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으로 명명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권고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원의 양성평등교육 역량 강화, 양성평등 점검기준표에 따른 진단 및 미진한 항목 중심 자율적 개선 노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수상 작품을 포스터로 제작해 학교 배부 등을 담고 있음

### 1)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교육 정책은 2018년~2022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성평등 교육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서의 성평등 교육 관련 정책은 크게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등 네 분야에서 정리되어 있음
  -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초등 국정도서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학 교양 교과목 내 양성평등교육 개설 권장 등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와 학교의 비교원 인력 양성평등교육 강화,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양성평등교육환경 조성 등을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음
  -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온라인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모바일 콘텐츠 확산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모니터링 및 이행 관리·감독 강화, 환류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홍보 관련매체의 다각화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교육 확대, 분야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음



## 2) 교육부·교육청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년별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함
  - 학생들의 발달 시기마다 필요한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성교육의 준거를 마련함
- 그러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변화하는 젠더 의식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젠더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이해, 가족과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임(이수연 외, 2016)

### (1) 2020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업무계획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는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대전광역시교육청, 2020.1.1.)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문가 활용 성폭력 예방 교육비 지원
  - 민간 전문기관 우수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성폭력 예방교육 취약학교 컨설팅

### (2) 2020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추진 계획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하여 성교육 과정 편성·운영하도록 『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시수 및 방법, 교재(교구)지원,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학교별로 성교육 업무 담당교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해야 함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연수, 홈페이지 자료 탑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거나 성교육 관련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자료 및 상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3) 2020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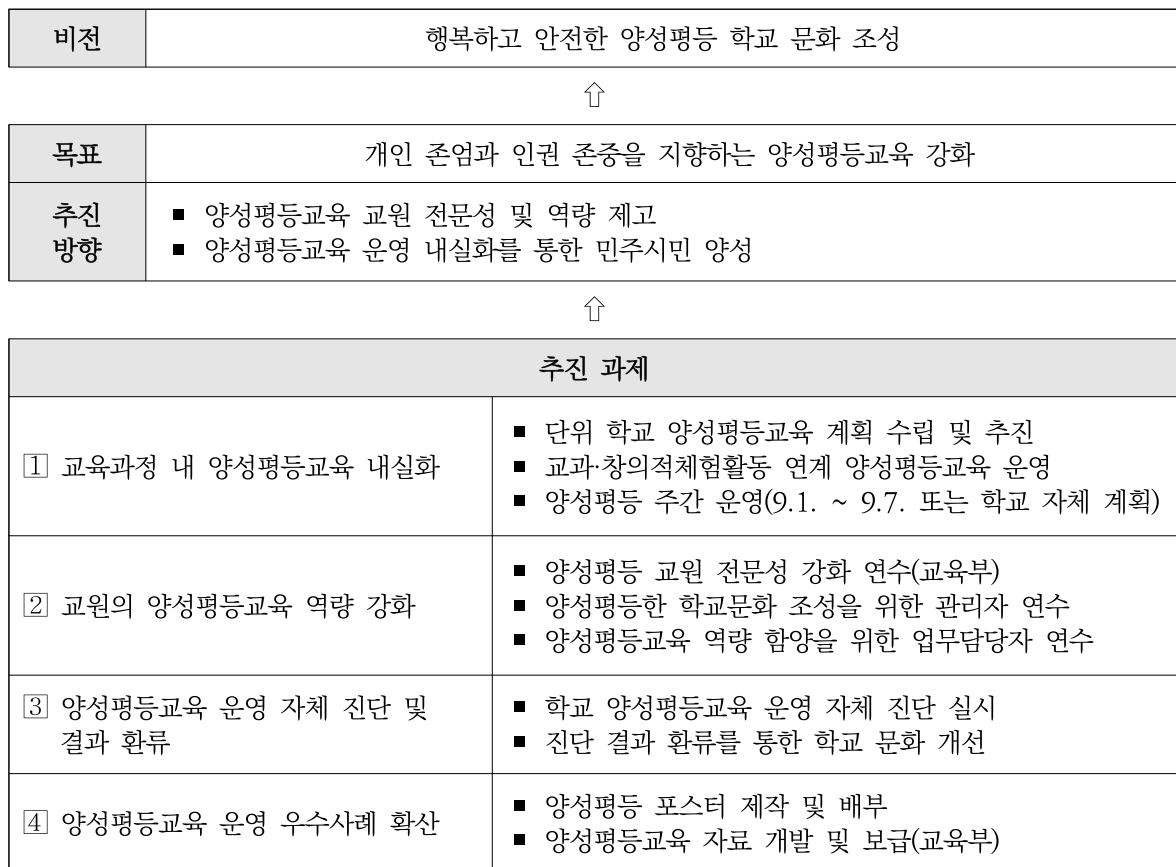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 예방’,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을

목표로 3대 영역, 7개 추진 중점 과제를 설정함. 3대 영역 안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는 교육과정 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유형 및 스쿨미투 발생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 불법촬영 및 유포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외부 전문가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성비위·성폭력 관련 사안 발생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학교, 기타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4) 2020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계획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그림 3-1]와 같이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마련함



[그림 3-1]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양성평등교육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출처: 대전광역시교육청(2020.3.), 2020학년도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계획

### 3) 대전광역시

#### (1) 2019년~2020년 성인지 정책 기본계획 및 2020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 정책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기초로 수립한 대전광역시 연도별 양성평등 시행계획과 『2019년~2020년 대전광역시 성인지 정책 기본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2019년~2020년 대전광역시 성인지 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대상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운영’,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인식 개선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성평등 교육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 꼽을 수 있음
  - ‘대상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는 인재개발원의 성인지 역량과정 개설 및 다양한 콘텐츠 성인지 교육을 통한 성인지 교육 참여율 제고, 공무원 및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운영’은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청소년, 노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경로당,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인식 개선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과 비의무 대상 사업장·의무대상 사업장 종사자 등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 교육의 내용으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폭력유형 대응 교육과 교육청, 학교를 통하여 찾아가는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대상 이성매매의식 및 성문화개선 교육을 담고 있음
- 『2020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도 청소년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강화,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일반국민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확대,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등 위의 내용을 골자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 (2) 2020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 대전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으로 양성평등 인식을 확대시키고 연령별, 계층별 성평등 인식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20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을 아래 [그림 3-2]과 같이 수립·추진함
- 이전과 달리 유아·초등학생, 청소년, 청년, 중장년 남성, 여성 대상 생애주기별(연령별, 계층별 등)로 구분해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은 성역할 고착화 전 유아 초등 중심 양성평등교육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 상	추진방향	추진계획
유아 ·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역할 고정관념 형성 전 성별 고정관념 탈피 문화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다움’ 성장지원, 「책으로 여는 평등문화 확산」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지도를 통한 양성평등 큐레이터 양성</li> <li>- 유아~초등학생 양성평등 큐레이터 파견 순회 교육</li> </ul> </li> <li>▪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양성평등교육 시범학교 운영</li> <li>▪ 어린이집 교사 대상 양성평등교육</li> </ul>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 형식 → 토론과 참여 (청소년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동아리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발표를 통한 성평등 동아리 성장 지원</li> </ul> </li> <li>▪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확대(2021년~)</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젠더갈등(혐오문화 등) 해소 →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등 성평등 문화확산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지역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해소 및 평등 문화 확산 지원/20여명</li> </ul> </li> <li>▪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9세 미취업 청년 20명, 찾아가는 성평등 활동 지원</li> </ul> </li> </ul>
중장년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위주 → 남성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회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보이스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0세 중장년 남성 20여명</li> <li>- 세대별 성평등 격차 완화, 남성참여 방안 마련</li> <li>* 여성가족원 등과 연계하여 ‘오파세대 홀로서기’ 맞춤 강좌 개설 운영</li> </ul> </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사회참여 확대 필요 → 여성 경쟁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여성아카데미 지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과정, 심화과정 운영 /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li> </ul> </li> </ul>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부모 손주 양육기능 확대 → 일상, 가족관계 성편견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관, 노인연합회 등과 협력, 특강, 인형극 등 운영</li> </ul> </li> </ul>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입식, 집단형(교재, 동영상 등) 강의 → 토론, 참여형 강의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폭력예방 활동강사 역량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활동강사 성인지갑수성 향상 등 기본역량 강화</li> <li>- 사회이슈, 트렌드 반영한 강의 활동 역량 강화</li> </ul> </li> </ul>

[그림 3-2] 대전광역시 2020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출처: 대전광역시(2020.3.10.), 2020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 교육 공급자 심층면접 사례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분석



## 4장 교육 공급자 심층면접 사례 분석

### 1. 조사 개요

-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성평등 강사,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 담당자,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방법 및 내용, 현황과 실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함
  - 나아가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적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총 9인(심층면접 6인, 서면 3인)으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함
  - 조사 대상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선정함. 대전시에서 ‘찾아가는 대상별 성평등 교육’을 위탁받아 ‘성평등 강사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를 우선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음. 이후 해당 기관을 통해 심층면접 및 서면 조사에 참여 가능한 성평등 강사를 소개받는 방법(눈덩이 표집)<sup>3)</sup>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추가로 생애주기 교육 대상 중 ‘영유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심층면접 및 서면 조사에 참여한 사례의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음

[표 4-1] 조사 참여 사례 특성

구분	표기	방법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	A	심층면접
성평등 교육 강사	B	심층면접
	C	심층면접
	D	심층면접
	E	심층면접
	F	서면
	G	서면
	H	서면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기관 종사자	I	심층면접

3) 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집단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이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방법

- 협력 연구인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의 면접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2차 자료로 분석에 활용함
  - 학령기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함
  - 조사는 심층면담과 서면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7개 초·중·고등학교 8인의 교원이 참여함
- 조사 개요는 다음 [표 4-2]과 같음

[표 4-2]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심층면접 및 서면조사	대상	▶ 대전시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 담당자 1인 ▶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성평등 교육 강사 7인 ▶ 대전시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기관 담당자 1인
	방법	▶ 의견수렴을 위해 개방형 형태의 질문지를 대면 및 서면용으로 개발 ▶ 심층면접: 1:1 방문 조사로 한 명당 90분 내외로 진행하고, 녹취 동의를 얻어 전사 실시 ▶ 서면조사: 질문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설명된 서면용 질문지를 발송한 후 회신함
	기간	▶ 대면조사: 2020년 11월 16일~12월 8일 ▶ 서면조사: 2020년 11월 23일~12월 1일
2차 자료	▶ 협력 연구인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의 면접조사 내용 일부를 분석자료에 포함함 - 대상: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7개교 교원 8인 - 심층면접 및 서면 - 기간: 2020년 9월~11월	

- 면접 및 서면 조사 내용은 크게 ‘대상별 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성평등 교육 강의안’, ‘성평등 교육의 과제’,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두어 구성함

[표 4-3] 조사 내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대상별 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 유아, 초, 중, 고, 성인 등 각 대상별 성평등 교육 주요 주제 ▶ 유아, 초, 중, 고, 성인 등 각 대상별 성평등 교육 내용 ▶ 유아, 초, 중, 고, 성인 등 각 대상별 성평등 교육 진행방식
성평등 교육 강의안	▶ 대상별 표준 강의안 여부 및 활용 방법 ▶ 대상별 자체 강의안 개발·구성 여부 및 과정 ▶ 대상별 자체 강의안 개발·구성 등 준비과정 상의 어려움 ▶ 개발된 강의안으로 현장에서 교육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
성평등 교육의 과제	▶ 성평등 교육 내용, 방법, 운영상의 공통 과제 ▶ 해결되어야 할 단기/중장기 과제 ▶ 대상별 주요 과제
성평등 교육 개선사항	▶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변화 ▶ 대상별 성평등 교육 내용, 방법, 운영상의 제안사항



## 2. 조사 결과 분석

### 1) 대상별 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 유아, 초·중·고,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대상별 교육의 주요 주제와 내용, 그리고 방식에 대해 살펴봄

#### (1) 대상별 성평등 교육 주요 주제

- 유아, 초·중·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인식 제고’를 대 주제로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실천’, ‘성차별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대상에 따라 세부 주제가 다른 것으로 파악됨. 이에 유아, 초·중·고, 성인으로 대상을 나누고 주요 주제를 살펴봄
  - 대전시 성평등 교육 주요 지원기관의 경우 매년 모든 대상을 관통하는 공통 상위 주제를 선정한 후 각 대상별 세부 강의안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유아

- 유아의 경우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기관 종사자와 성평등 교육 강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성평등 교육의 주요 주제에 대해 파악 가능했음
  - 성평등 교육 강사 대상 면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주제는 ‘다양성의 인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유아 및 초등학생은 다양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중략) 조금 더 흥미 위주로 접근해요. 그리고 대중매체를 사례로 활용을 많이 해요. (중략) 매년 모든 대상에 대한 큰 주제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해요. 특히 교안에 고정관념에 대한 사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차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답습니다(사례 E)*

*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일상 생활 속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사례 F)*

-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기관과 종사자 면담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기반한 교육을 주요 주제로 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함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 영유아들에게 연 단위로 주기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안전교육이 있어요. (중략)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 보다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성희롱 교육은 교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략)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이외에 유괴, 실종,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해요.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이에요.(사례 1)

## ② 아동(초등)

- 초등학교 대상 교육은 크게 성역할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큰 주제를 공유하고, 성 불평등, 성 차별에 대해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 간 교육 주제에 차이를 두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상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사례의 범위를 넓히고 직접 탐색해보는 과정이 추가되는 등 심화시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생각이 자라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생각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에 집중해요(사례 A)

초등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바라보게끔 하면서 나다움을 찾도록 하려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해요. (중략)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과 성차별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게 하는 거죠.(사례 B)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공고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과서 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 찾아보는 것과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어요(사례 C)

## ③ 청소년(중고등학교 취학 기간)

- 중등 대상 성평등 교육의 핵심도 ‘성평등 인식 제고’로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에서 나아가 가정, 사회와 관련한 성 불평등 사례를 보다 더 확대해서 접근함. 또한 청소년 대상 부터는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추가해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이미 받아들여져 있고 굳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례 A)

중학교부터는 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중략) 중학교부터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아예 교안에 띄웁니다 (사례 C)

중학생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오기(탈출하기)를 주제로 섹스와 젠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여자다움, 남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사례 F)

- 고등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를 설득하고 젠더 폭력의 기저에 성 불평등한 인식과 상황이 깔려있다는 점을 심화교육으로 실시함
- 고등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교육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통한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의 사례가 더 심층적이죠. (중략) 고등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현재의 사회 이슈를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거든요(사례 E)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젠더박스라는 개념도 설명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통념으로 인한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성 차별적 상황 인지하기, 젠더 폭력의 실태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사례 H)

#### ④ 성인

- 성인 대상 교육도 공통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 차별적 상황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다루며, 나아가 젠더 폭력에 대한 개념까지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음
-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필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직무현장인 교직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외에 학부모, 중장년층 여성, 노령층, 주민공동체 대상 교육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

교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4대 폭력 예방교육과 다르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이 시행될 때 교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사례 C)

보육 교직원 대상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 의무입니다. (중략) 보통 성폭력, 아동학대, 유괴, 실종 예방교육 카테고리를 묶어서 연 1회 3시간 정도 실시하고 있어요(사례 I)

최근 들어 주민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가 생겼어요. (중략) 이들을 대상으로는 '편견 없는 일상에서 성'을 대주제로 강의했어요 (사례 A)

학부모 대상 교육에서 특이점은 동일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도 피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여요. 아들만 양육하는 부모, 아들과 딸을 동시에 양육하는 부모, 딸만 양육하는 부모 등 자식의 성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사례 C)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대상으로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리플렛으로 전달하거나 대면 교육 형태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합니다. (중략) 특히 유아의 경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사례 I)

노년층 대상 교육으로는 일명 ‘할머니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했어요. (중략) 예전과 달리 많은 부분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사례 C)

## (2) 대상별 성평등 교육 내용

- 대상별 성평등 교육의 내용의 경우 대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교수자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한 내용이 대상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유아, 초·중·고등학생은 대상의 인지 능력에 기반하여 필요한 교육이 파악 가능하나, 성인 대상의 교육은 내용의 폭이 강사의 재량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음이 제기됨

### ① 유아

- 유아의 경우 유아가 익숙하게 느끼는 동요 및 동화책, 손인형 연극 등을 활용하여 ‘성차별 요소’를 파악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생소한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인형, 동화책을 많이 활용해요. 남녀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형을 가져가서 남자가 누굴까 여자가 누굴까 스스로 찾아보게 하거나 나다움 책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사례 C)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준비합니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대중매체에 방영되는 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해요 (사례 E)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 안에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차이를 인지하고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며, 나에 대한 존중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맥락에서 내용을 전개해가요. (중략) 영유아 대상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특히 어려운 점은 생소한 용어를 쉽게 전달해야 할 때예요. 발달적인 특성에 있어서 아직 인지력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사례 I)

② 아동(초등학교 취학 기간)

- 초등학생이 대상일 경우 저학년의 경우 유아와 교육의 내용과 비슷하나 '언어'를 활용한 교육의 빈도가 높았으며, 고학년의 경우 교과서 및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조금 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함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교육을 할 때 주로 동화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중략) 읽어주는 사람,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느냐에 따라 동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평등한 관점을 설명하는데 유용해요(사례 A)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생긴 고정관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동요, 동화책을 중심으로요. (중략) 고정관념이 드러난 부분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성평등하게 바꿔보는 그런 활동들을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해요(사례 B)

누구나 다 아는 상어가족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중 성차별적 부분을 찾고 성평등한 가사로 개사해보는 활동도 했어요(사례 D)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성차별 요소 찾아보기와 젠더 관점에서 공공기관 마스코트를 살펴보는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의 마스코트에 반영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왜 그런지 이야기 나눴고, 우리 반의 마스코트를 성평등한 관점에서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사례 C)

③ 청소년(중고등학교 취학 기간)

- 중학생부터는 성(性)과 관련한 개념 정립을 위해 관련 정의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생활에 밀접한 사례를 담아 교육안을 구성하고 있음

남자이기 때문에 듣기 싫었던 말, 여자로서 듣기 싫었던 말을 생각해서 포스트잇에 적고 붙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생활 속에서 겪었던 불쾌하거나 불편했고, 차별적이라고 느껴졌던 말과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의 입장을 좀 바꿔보는 거죠 (사례 B)

중등부터는 관련 개념들을 정리해주고, 개념의 범주나 흐름도 이야기 합니다. (중략) 청소년들은 개념 설명에 있어서도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안 초반 도입 부분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여 수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사례 C)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정관념과 관련한 실제 상황 또는 사례들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개념 이해를 위해 초성퀴즈를 풀어보기도 해요(사례 D, 사례 F) 성퀴즈도 좀 들어가구요.(사례 D)

- 고등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은 사회적 이슈와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기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젠더 이슈를 포함시킴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의 교훈을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도 해요.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남자 고등학교 교훈에는 '성실', '추진', '전진' 이런 단어들 많이 등장하는 반면, 여자 고등학교 교훈에는 '순결', '꽃', '암전' 이런 단어들의 빈도가 높아요. 이렇게 사례를 활용해서 이야기 나누다보면 성 차별적 표현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 쉬워요. 이전과 같은 주입식 교육은 이제는 끝났죠(사례 B)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다루기도 해요. (중략)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웹툰이나 웹드라마 가지고 젠더 편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요(사례 C)

중학생들 보다 훨씬 젠더 이슈에 민감하고 공감도도 높아요(사례 E)

#### ④ 성인

- 성인의 경우 종합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내용의 범위가 광범위하나 주로 일상에서의 성 차별과 성인지 관점의 제고를 통한 폭력 예방 중심으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유아를 비롯한 학령기의 대상들이 연령을 기반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소속된 직무 현장이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집단으로 구성되어져 교육을 받고 있음
- 집단의 종류, 주 분포 연령층, 강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 내용이 구성되므로 내용의 폭이 넓고 다양함

연령대가 다소 높은 주민공동체 대상 교육에서는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집단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죠. (중략) 또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똑같이 '1 대 1'로 만드는 게 평등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요(사례 A)

성인 대상 성평등 교육에서 '성 차별적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꿔보기', '단어에도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미 차이', '화재보험 가입 시 성별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보험 금액의 이유' 등 일상의 사례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사례 C, 사례 D)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내용 안에 묶여 있어요. 학대부터 양육 스트레스까지 복합적인 교육을 통해 풀어나가요(사례 I)

### (3) 대상별 성평등 교육 진행방식

- 대상별 성평등 교육의 진행방식은 크게 ‘체험형’, ‘강의 및 체험 병행형’, ‘강의형’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됨
-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필수적으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 학생 이상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체험활동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강의 및 체험 병행형’ 또는 ‘강의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됨
- 성인의 경우 시수와 집단에 따라 여러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기존 강의형 교육의 경우 점차 체험 병행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통된 진솔이 확인됨

#### ① 유아

- 발달 특성상 수업 양과 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짧은 시간 놀이 위주의 형태로 진행됨
  - 어린이집마다 6, 7세 재원 비율, 영아 재원 여부 등 환경과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수업 내용과 방식이 상이함

*어린이집 각자가 처한 환경과 교직원 재량에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의 방식과 내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이 안에서 보육 교사들 나름 각자 적절한 매뉴얼과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놀이 위주의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유아 대상 성평등 교육의 현실이에요(사례 1)*

#### ② 아동(초등학교 취학 기간)

- 초등학교는 활동을 중심으로 ‘체화’ 및 ‘내재화’에 중점을 두는 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 활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초등 같은 경우에는 40분 수업인데 20분 설명하고 20분 활동을 해요. 하다 보면 활동 시간이 짧아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움직이면서 써본다거나 만들 때 체화되더라고요. 너희가 접하는 것부터 성 불평등한 것부터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사례 A)*

*아동 대상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금하게 만들고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또한 중요하죠. 동요 속 단어 바꿔보기와 같이, 본인들이 아는 소재로 직접 놀이처럼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요(사례 B, 사례 D, 사례 E)*

#### ③ 청소년(중고등학교 취학 기간)

- 중학생 대상 교육부터는 개념을 인지하기 위한 이론 교육과 함께 체험활동이 병행되는 방식이 주됨. 중학교까지 활동을 포함한 교육 실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20~30분 활동을 진행했다면 중학생 대상은 15분 정도로 활동 시간은 줄어요. 그래도 중학생까지는 활동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넣어요 (사례 A, 사례 D)

-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대상자와 교수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진행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방식은 교육 대상자의 몰입도 증진 및 교수자의 대상자의 이해 정도 확인, 수업에 대한 피드백으로 활용되고 있음

고등학생들은 질문이 많아요. 학생들과 질의, 응답하고 이를 설명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요. 이렇게 대화 형태로 진행하는 교육이 몰입도가 높아요(사례 A)

고등학생 대상 교육부터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와 같이 개념화 된 내용을 위주로 강의 형태 수업이 가능해져요. 최근 이슈,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 해주죠. 이게 대상자의 공감도를 높이는 방식이에요.(사례 B, 사례 E)

#### ④ 성인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워크숍 혹은 세미나 형태의 단발성 강의 형태의 교육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
  - 성인 대상 교육 또한 체험을 통한 효과성이 확인되므로, 활동형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됨
  - 일부 사례 중 ‘여성주의 글쓰기 모임’, ‘할머니 페미니즘 모임’ 등 직접 스스로 모여서 활동하는 소그룹을 지원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일반 성인들 대상 성평등교육은 주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부모 여성 대상 여성주의 글쓰기를 8회에 걸쳐 진행했고, 이 또한 다른 방식의 성평등 교육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 C)

토론, PPT와 동영상 시청, 설문 조사 등 성인 대상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려고 해요(사례 C, 사례 H)

학부모 대상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고,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열기도 하고요(사례 I)



## 2) 성평등 교육 강의안

### (1) 표준 강의안 여부 및 활용방법

-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소속 성평등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 내에서 개발한 표준 강의안이 있으나, 그대로 교육에 적용하기 보다 자체적인 강의안을 꾸준히 개발하는 방식을 취함
- 성평등 교육 강사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주요하게 활용되는 교육 자료 출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젠더온'인 것으로 확인됨
  - 강의안 개발 시 중립적인 시각에서 강의안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증된 자료의 선호가 나타남
  - 이 외에도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이러닝 센터', '젠더온',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여성신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서적과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새로운 젠더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개발한 표준 강의안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강사들이 모여 대상별 강의안을 개발해요. (사례 A, 사례 B, 사례 F)*

*편향적이지 않은 교안을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의 자료들을 주로 활용해요. 초등학생 대상 교육에서는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sup>4)</sup>의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교육청,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여성신문 등에서 자료를 얻기도 해요(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례 H)*

-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이가 있으나,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청의 교안에 따라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기관마다 연간 학습 계획을 세우고 교원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원장님의 재량으로 어린이집마다 채용 원아의 연령, 특성들을 고려하여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보육 선생님들은 지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 매체를 활용해 놀이 교육을 실시합니다(사례 I)*

### (2) 자체 강의안 개발·구성 여부 및 활용방법

-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의 주도로 매년 초 중점적으로 자체 강의안이 개발되는 것으로 확인됨
- 자체 강의안 개발·구성 여부의 경우 대다수 면담자들의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에 속해 있는 강사들이었으므로, 자체 강의안 개발·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전시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 함

4) 초등학교 교사들의 젠더교육 연구 모임(outbox.co.kr)

매년 개발된 자체 강의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4월에 신규 및 기존 강사 모두가 본인이 개발한 교안으로 15분 시연과 피드백을 받습니다(사례 A)

- 성평등 교육 강사들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형성하여 강의의 주제 및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의안을 구성함. 개별적으로 구성된 강의안은 시연과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 하나의 통합 강의안으로 구성함
-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 및 사건을 반영하고, 교육 진행을 통해 교육 대상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강의안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확인됨

강사들이 모여 강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시연하고 의견 교환 과정, 관련 문헌 공유 등을 통해 양질의 강의안이 만들어져요(사례 B, 사례 G)

이런 공식적인 교안 개발 과정 외에도 각자 연구 모임을 통해 나온 내용도 반영합니다. 또한 교안 개발하면서 올해의 주제를 선정하고 교안의 순서도 정해요. 또한 단순 나열식이 아닌 스토리텔링이 되는 교육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내용 전달이 원활하게 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사례 C, 사례 H)

이슈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교육 대상자 또는 기관 특성에 따라서 교안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교안에 반영하기도 해요(사례 B)

### (3) 자체 강의안 준비과정의 어려움

- 자체 강의안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강의안 개발과 활용과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음
- 성평등 교육 강사들의 경우 전업 강사가 아닌 비 전업강사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체적인 강의안 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 형성과 시간 할애에 대한 부담이 발생함

강사들이 대부분 프리랜서이므로 강의안 개발을 위한 모임 시간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사례 B)

모든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의자료를 활발히 공유하기도 하지만 최종 편집인의 의견이 주로 반영될 때도 많으며, 지속적인 수정 과정에서 편집자의 부담이 커질 때가 있어요(사례 F)

- 내용 구성 측면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꾸준한 개편이 필요하나 '표준 강의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식적으로 배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신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교육 대상에 맞는 강의안과 사례 개발이 요구되어짐
- 활용 가능한 자료 중에는 특정 성의 피해 사례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라 중립적인 교육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됨

*대상별 수준에 맞는 교안 구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 자료에서는 대상별로 세분화 해서 개발된 자료가 미미해요(사례 C, 사례 D)*

*유아의 경우 만 3~5세 누리과정 대상을 위한 콘텐츠가 다양화 되어야 합니다(사례 I)*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에서는 특정 성별에 치우쳐진 자료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교육에 대한 저항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자료에서는 특정 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가 자료로 삽입된 경우가 많아요. 사용 가능한 사례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 활용에 제한이 따르죠(사례 D, 사례 E, 사례 F, 사례 H)*

*성인 교육은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콘텐츠의 양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사례 D)*

- 예산상의 한계로 체험 및 참여형 교육안이 개발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존 강의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앞서 교육의 방식과 내용과 연계 지어 고려할 때,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경우 참여형 교구가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짐
- 위와 같은 교구의 개발이 강사모임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됨
- 포스트잇을 활용한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 또한 보드게임, 손인형 제작 등의 교구 개발보다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강의용 콘텐츠는 체험활동에 적합하지 않고, 동영상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보드 게임 등 체험활동을 위한 교구의 경우 개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사례 B)*

#### **(4) 개발 강의안 활용 시 현장교육의 어려움**

○ 현장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교육 의뢰기관이 교육을 의뢰할 때 신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을 파악하고 강의안의 일부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발생함
-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유연한 강의안을 준비해서 대응하지만, 시간상의 한계에 직면해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부분 학교 강의가 40~50분 안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PPT 강의와 활동을 병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강의안 구성할 때 모두 준비해 가더라도 시간적 제약으로 빼야하는데 부담감이 있어요(사례 C)

학교마다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와 교육의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교육 대상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된 교안 외에 부가적인 자료가 요구되어져요.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맞춰 대처하는 경우도 많아요(사례 E, 사례 G)

- 교사나 학교 측의 요청 또는 개입으로 인해 교안의 자유로운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함

교육을 의뢰하는 담당자의 성평등 의식이 강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현장에서 교육안의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제재를 당하기도 하죠(사례 A)

학생 대상 교육 현장에서는 스쿨미투, 교내 성차별, 인권침해 등의 사례를 다루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사례 H)

### 3) 성평등 교육의 과제

- 생애주기 모든 교육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파악했으며, 또한 대상별로 나눠 성평등 교육의 주요 과제를 분류·분석함

#### (1) 단기 과제

- 체험과 놀이 활동을 통한 방식이 교육 효과와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짧은 교육 시간으로 체험과 놀이를 병행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
  - 상대적으로 체험 및 놀이형 교육의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주로 나타남
  - 제한된 교육 시간으로 간소화된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음(ex. 성차별 언어 포스트잇 붙이기)

한 시간 강의를 들어가는데, PPT 교육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것은 활동형 교육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인 강의에 더해져 활동을 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사례 C)

초성 퀴즈, 보드게임, 토론 등을 하는데,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사례 B, 사례 E)

- 교과서 속 성차별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했는지

추가적인 이행점검 체계가 요구됨

*교과서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장난꾸러기'를 찾으면 아직도 전부 남학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중략)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제대로 반영 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려워요(사례 E)*

- 교안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 강의안 공급이 적고, 공급된 교육자료가 대상별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됨

*성평등 교육 자료가 많이 부족하며 그 내용 또한 유사하여 소재 발굴이 어려워요(중략) 검증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접근성이 낮아요(사례 H)*

*대상별로 세부 자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사례 C, 사례 D, 사례 E)*

- 이슈를 반영한 지속적인 교안·교구 개발의 부담이 교수자의 개인에게 가중되고 있음
  - 대상에 맞는 교안과 교구를 개발함에 있어 교수자 개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남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자료가 구성되어야 하고, 사회적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립적인 사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 편입니다(사례 B, 사례 C, 사례 D)*

- 교육을 의뢰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의 교육 신청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의뢰를 받는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의 강의안 준비 과정과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함에 따라 교안의 준비 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본 내용을 현장에서 모두 전달하지 못함
  - 교육 신청 목적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음

- 성평등 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개선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육의 효과를 강사가 주관적으로 파악하거나 교육 시 피드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학교 차원에서도 사전, 사후 설문지를 돌리는 곳은 없습니다(사례 B, 사례 C)*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공급을 위해 성평등 교육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한 강사 인력 확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가 과제로 제시됨
  - 대전시는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전문가로서 발전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짐
  - 교안 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임

*전문 성평등 교육 강사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 B, 사례 H)*

*전문성을 키우기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보수 교육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사례 B, 사례 G, 사례 C)*

*다양한 콘텐츠나 교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사례 B, 사례 C)*

- 성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므로 성평등 교육의 효과 홍보를 통해 부수적인 교육이라는 인식 탈피가 필요함

*의뢰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학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성평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사례 D)*

*항상 다른 세미나 또는 워크숍의 앞과 뒤에 배치되면서 성평등 교육이 부수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사례 E)*

## (2) 중장기 과제

- '성평등 교육'이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대다수 응답에서 확인되었으며 교육의 의무화를 통한 참여와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

*모든 교육 대상들이 적어도 매해 3~4차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 교육만이 방법이에요(사례 C)*

- 특히, 학령기 교육 대상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성교육 시간 또는 교과 과정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으나, 현재 비의무화 체제에서 성평등 교육은 범교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며, 혹은 입시 등을 이유로 축소 진행되거나 지연되고, 필수 이수 시간인 성교육에만 매몰되는 것으로 나타남<sup>5)</sup>

*학업이 중요하니 성평등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관련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진행합니다(사례 D)*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밀리는 교육이 되죠(사례 A, 사례 E)*

*성평등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주제나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거의 말을 못 합니다. 매번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요(사례 F)*

○ 20대와 30대 강사 인력 양성이 과제로 제시됨

- 성평등 강사의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한 20대와 30대 성평등 강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성평등 강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2030세대가 성평등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 과정 개설 및 지원이 요구됨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20~30대 강사들은 거의 없어요. (중략) 이들만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만들고 배출할 필요가 있어요(사례 B, 사례 C)*

○ 행정기관과의 소통 채널 및 협력 기반의 부재로 인한 교육 운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전시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MOU 체결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별 실무 추진이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우수 교안이나 교구 사례가 공유되지 못함

*성평등 교육을 관심을 높이고 좋은 강의안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교수자의 교안 또는 각 기관의 교육 계획과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거 같아요(사례 I)*

5)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함

- 지역사회에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추진체계 일원화를 제시함
  - 피면접자들은 성평등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증진, 교육안 개발 및 교육 제공, 교육의 질 모니터링 등 관련 성평등 교육 사업이 일원화된 추진체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함

### (3) 대상별 주요 과제

- 성평등 교육 대상별로 구분해 제시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유아

- 유아는 연령마다 사고 및 인지 능력 발달 편차가 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음을 지적함
  - 성폭력 예방교육에 매몰되어 있으며, 이 또한 학대 교육과 통합으로 실시하고 있음

*미취학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라든가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시기예요. 이런 유아들에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을 아울러서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따라요. (중략) 또한 성평등 관련 교육에서도 성폭력 예방에만 집중되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사례 1)*

*유아 대상 교육이 폭력 예방교육에만 치중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성평등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죠(사례 C)*

*유아용 교육 콘텐츠가 너무 빈약해요(사례 1)*

- 교수자의 역량이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인식이 낮고 교직원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성평등 교육을 받아들이고 직접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 대상 교육이 절실해요(사례 A)*

- 교육 주체 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함

- 유아의 경우 행정기관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정보 공유 창구가 미비하여 교육 콘텐츠 수준이 각 원마다 다르며, 파악하기도 어려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 형태가 다양하고 운영 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행정 기관과의 교류가 적고,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은 편이에요. 서로 간의 요구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자리도 부족해요(사례 1)*

② 아동(초등학교 취학 기간)

- 피면접자들은 유아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다른 생애주기 대상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피력함
  - 이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남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성 불평등, 성차별에 대해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거죠(사례 E)*

- 활동 및 참여형 교육 실시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내용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초등학교는 한 시수가 40분이예요. 활동을 꼭 넣어야 하는 초등학생 대상 수업에서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죠(사례 B, 사례 C)*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지만 한 시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바로 다른 반으로 이동해서 수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사례 B)*

③ 청소년(중고등학교 취학 기간)

- 필수인 15시간의 성교육 안에 성평등 의식 교육 시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폭력 예방교육과 통합되어 성교육 안에 1차시 운영으로 그치고 있음
  -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임을 지적함

*대부분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통합 실시로 의뢰가 들어와요. 그것 또한 일회성에 그치고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이론과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적어도 2차시 수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례 A, 사례 C, 사례 E)*

④ 성인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의 범위가 넓어 맞춤형 교육안을 수립하고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성평등 교육 자료에 성인의 경우 직무대상자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제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지는 않아요(사례 E)*

타 지자체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지역 안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사례 C)

-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함

폭력 예방교육은 필수니까 일회성 교육으로 의외하죠. 그마저도 다른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끼워 넣기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사례 E)

- 비의무 대상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회성, 산발적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비의무 대상에 대한 성평등 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양을 늘리고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사례 C)

성인의 경우 성평등 교육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교육 요청 자체가 적고, 늘어난다 해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사례 D, 사례 E)

- 성인 대상 성평등 교육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꼽힌 집단은 교직원과 학부모임
  - (교직원) 교직원은 학령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 접하는 교육의 전달자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 모색해야 함
  -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에서도 교사들 스스로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교안 및 교구 개발을 위한 연구 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요구함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성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직원 대상 교육은 주기적으로 전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사례 B, 사례 E, 사례 F)

- 교직원의 부족한 성평등 의식은 교육 안내 부주의로 이어짐. 성평등 교육을 성교육과 동일시 하여 안내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함

‘성평등 교육’을 ‘성교육’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식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간단한 안내이지만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사례 B, 사례 E)

- (학부모) 교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학부모 대상 교육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나타남. 특히 학부모 대상 교육 방법의 실효성이 낮음을 지적함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면 다양한 연령이 모이는데요. 그런데 연령에 관계없이 성별 고정관념이 나타나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인물로 대체해서 교육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사례 C)

#### 4) 성평등 교육 개선사항

- 단기, 중장기 과제와 연계해 제안된 개선사항을 분류·분석함

##### (1)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시간 확대

- 의무교육인 폭력 예방교육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평등 의식교육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무 시행을 위한 조례 검토 및 개정, 모호한 시행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성평등 의식 관련 교육의 시수 및 횟수 확대를 통해 이론 수업과 활동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효과 증대
- 성평등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계별 도입이 요구됨. 즉, 유아부터 시작해 학령기, 성인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도나 법적 뒷받침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사례 D, 사례 E)

- 초등학교의 경우 중등 학령기와 비교해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음. 따라서 '방과 후 교실'을 활용해 성평등 교육의 일환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평등 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례 B)

- 현재 중학교의 경우 학생 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성평등 교육의 운영 및 확대가 가능함.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중 동아리 또는 선택 활동 운영 계획에 '성평등' 관련 주제로 편성할 필요 있음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하나의 주제로 편성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한다면 지속적으로 12회 이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B)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의 경우 직무현장, 사회 및 가정 내 역할에 따라 다양한 집단에 중복적으로 소속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교육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화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기존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자를 시작으로 교육 시간 및 횟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고려해야 함

*성인 대상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한 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만이라도 성평등 의식 교육을 포함하여 의무 이수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사례 C)*

## (2) 교과서 내 성차별적 요소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성평등 교육의 주요 대상자인 학생들의 학습 도구로서 교과서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질 높은 강의 개설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되므로 체계적인 교과서 모니터링 실시가 선제되어야 함을 강조함

*초·중등 교과서에서 성평등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삽화, 사진, 텍스트에 대해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실제 반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본 학습 교재인 교과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어요(사례 E)*

## (3) 대상별 맞춤형 강의 교안·교구 제작

- 대상별 맞춤형 강의안을 마련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된 교안 내 단어, 문구 등 텍스트 검토를 통해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될 필요 있음
  - 교육 수혜 대상이 검토 및 개선 과정에 참여한다면 교안의 효용성 제고할 수 있음
- 대상별 성평등 교육 교안 및 교구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 및 확산이 요구됨

*무조건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들었던 것들로 구성하면 쉽게 이해합니다(사례 B)*

*교육 대상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거부감을 느끼기 단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사례 D, 사례 I)*

*특히 학령기 학생들의 경우 단어 하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언어 사용이 중요해요(사례 F)*

## (4)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및 방식 다양화

- 성평등 교육의 프로그램과 이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됨. 교육 전문가의

수준 높은 교수법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젠더 감수성 향상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무현장이 아닌 이상 집단화 시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성인의 경우, 교육 현장의 실행력 및 교육의 품질 강화를 위해 교육 방식 전환이 우선 요구됨

*대학생 페미니스트 동아리와 연대를 맺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전문가 멘토링 형태를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사례 A)*

*'OO시 할머니 페미니즘 모임'과 같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 형태를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사례 C)*

#### (5) 교육 목적, 대상 등 현장의 특성 사전 검토 제도 도입

- 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의 상황은 수강자의 수강 태도와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의 목적과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의뢰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단체로 50~100명씩 강당에서 수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소수 인원으로 수업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확실히 집중도가 높아져요. 활동도 가능해지고요(사례 B)*

*교육 의뢰 목적, 대상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교안 준비가 수월해지고(사례 E), 교육 대상자의 만족도도 높아지죠(사례 G)*

#### (6) 성평등 교육 대상자 수요 파악

- 현실적으로 성평등 교육의 주제 및 방법이 교육 공급자 주도로 선정되어지고 있음. 이는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대상자 맞춤형 교육이 빛을 발하려면 대상자들의 수준, 교육 경험, 정확한 욕구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이를 기반으로 교안을 제작하고 강의한다면 교안의 효용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사례 H)*

#### (7) 성평등 인식 조사 및 변화 관찰

- 교육 신청 이력이 있는 학교 및 기관은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사전 및 사후 성평등 인식 조사 설문이 필요함을 피력함

주로 신청하는 학교 또는 기관들이 꾸준히 의뢰하므로 성평등 교육 이전과 이후의 성평등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성평등 인식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사례 B, 사례 C)

#### (8) 교수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 성평등 교육 교수자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드러남
  - 교사들 대상 면접조사<sup>6)</sup>에서도 교사 대상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함

강사 스스로가 역량 강화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사례 A, 사례 C)

강사들의 정기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교육안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 B, 사례 C, 사례 G, 사례 H)

#### (9) 교육 제공자(기관) 간 협업 관계 구축

- 성평등 교육의 공급자 간의 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학령기 대상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외부의 성평등 교육 전문가인 '강사'가 함께 성평등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 마련이 요구됨

교육 전달자들이 같이 모인다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고, 선생님도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서로 학습의 기회도 되고 현실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사례 B)

- 지역사회 NGO 단체, 교육 지원기관과 주요 교육 수요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육 방식의 다양성 확보와 교육의 질 제고 가능함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자율동아리에 성평등 주제로 동아리가 개설이 된다면 시민 단체와 연계해서 동아리를 지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관련 도서 추천부터, 주제 의식의 공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멘토링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례 A, 사례 H)

- 영유아의 경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교육청과 유치원, 성평등 교육기관이 협업 관계를 맺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교육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드러남

6)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

- 최근 사회에서 보고된 영유아의 성 행동은 우리가 경험하고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 나타나고 있음. 영유아기의 성 행동이 또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발달적, 교육적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오지 않았음. 따라서 실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나 양육자, 어린이집 현장에서 영유아기에 성 개념 획득과 성역할 습득이 과거에 비해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 있음(보건복지부b, 2020). 이와 같이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에 대한 안내서가 배포될 정도로 일상적인 성 행동 지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감지해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며,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있음

*최근 들어 유아 성 행동 관련해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자문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해졌어요. (중략) 교육 제공기관, 행정기관과 소통이 더 잘 되어서 능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사례 D)*

#### (10) 단일화된 성평등 교육 운영·지원 체계 설치

- 대전 지역 내 현재의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 지원체계의 일원화 및 기능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NGO 단체 등 각 교육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은 생애단계마다 실행 방향과 방법의 차이가 크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일원화된 통합·거점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함. 각 교육기관과 연계해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의 지원과 직접 실행, 전략적 교육 대상 및 방향 설정,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맞춤형 강사 양성, 수요 조사 및 교육 연구, 체험 활동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제시됨

*지역에 성평등 교육 관련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요. 체계적인 교육의 실행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사례 A, 사례 B, 사례 F)*

*각 지자체에 성 문화센터가 건립된 것처럼 교육 공급자 발굴 및 양성, 교육기관 지원과 함께 성평등을 주제로 체험 활동이 가능한 기관이 필요해요(사례 B)*







## 성평등 교육 개선방안

1. 학령기 대상 성평등 의식 및 교육 수요 조사 실시
2. 성평등 교육 참여 주체와 대상 다양화
3. 성평등 교육 공급 서비스 향상 지원
4. 성평등 교육 공급 체계 개선



## 5장 성평등 교육 개선방안

### 1. 학령기 대상 성평등 인식 및 교육 수요 조사 실시

- 현실적으로 성평등 교육의 주제 및 방법이 교육 공급자 주도로 선정되어지고 있다고 지적됨. 이는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대상자의 성평등 인식 및 수요자들의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 및 수요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대전 소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정도,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추후 성평등 인식 확산 교육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성인지적 관점 강화 관련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향 및 내용과 방식 개선 가능함
- 학령기 대상 성평등 인식 및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 젠더 전문가 및 활동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대전시는 수요 조사 실시를 위한 지원, 명확한 실무진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 구분 및 명시
  - 대전시교육청은 협력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조사 대상 학교 및 학생 리스트 파악, 단위학교 조사 시 중계자로서 조사 진행에 적극 협력
  - 젠더 전문가 및 활동가는 조사 설문지 개발 및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 분석 및 방안 모색

### 2. 성평등 교육 참여 주체와 대상 다양화

#### 1) 우수 교구교안 공모전 및 대회 개최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공급자들은 대상별 세분화되고 다양하며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우수 교구와 교안을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모전 및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 전달자들의 성장과 교안교구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
  -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교구가 현장 적용에 가장 적합할 것이기 때문에 교구교안 개발, 성평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업내용

- 교육 대상별 우수 사례 공모전 및 발표 대회 실시
    - ‘주제적합성’, ‘기획력’, ‘활용도’, ‘교육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및 시상
  - 발굴된 우수 교안 및 교구에 대해 ‘현장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 교수자들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 교안 사례 PPT형태의 자료집 발간, 교구 활용 동영상 제작해 대전시청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고 우수 성평등 교육 교구, 교안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

## 2) 청소년 성평등 동아리 운영지원

-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자율 동아리 및 창의체험 동아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령기 교육 대상의 성평등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2020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시범사업(Test Bed) 형태로 ‘청소년 양성평등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sup>7)</sup>을 실시함
- 대전시 4개 고등학교 36명의 학생과 5명의 멘토가 팀을 이루어 학교 안과 밖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성인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제안사항을 도출함
  - 청소년들 스스로 개선되어야 할 일상 속 성차별 문제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됨
- 2020년 청소년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육 방법으로 더욱 효과적인 성평등 인식 제고가 가능함을 확인했음
- 동아리 지원 사업의 확장 및 지속을 위해 관내 대상 학교 및 동아리 확대,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사항을 위한 전문 멘토 발굴 및 매칭, 실천 활동 강화 등이 제안됨
- 사업내용
- 대상 선정의 범위를 대전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전체로 확장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활동에 참여할 대전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성평등 동아리를 선정, 지원해야 함
    -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제 선정과 결과 도출이 가능함
    - 제출할 결과물의 종류를 글쓰기, 포스터, 사진, 영상 등 다양화할 수 있음
  - 전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토론 및 발표 형식으로 의견교류를 진행하며,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 실천을 통해 성평등 의식 향상
  - 지역 내 2030세대 성평등 교육 활동가 또는 여성단체 젠더 활동가 등을 멘토로 참여시킴으로

7) 자세한 동아리 활동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http://www.dsi.re.kr)) 연구원 발간물에서 ‘대전시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자료집- 고등학생 양성평등 동아리 편’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형성 및 원활한 학문적·실천적 교류를 통한 결과 산출물의 질적 제고

- 학령기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열린 방식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
- 대전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또는 성평등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확장 및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화에 이바지함

### 3) 주민공동체 대상 교육집단 발굴 및 성평등 교육 실시

- 본 면접조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은 의무교육이 행해지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교육집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시행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도출됨
- 최근 주민들이 단순한 의견제시 뿐만 아닌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책의 계획 및 실행, 평가 등 모든 절차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와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되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2019)는 마을활동가의 정의와 역할을 비추어 봤을 때 활동가의 젠더 감수성은 성평등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강조함
  - 비영리조직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소속활동가/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2019)
- 대전시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 면접 조사에서도 관내 일부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함
  -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 참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평등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됨
  - 젠더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적시하고 해결방안과 목표 등을 모색하며 성평등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야 함
-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결집 및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는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 및 전문교육과 자치구 및 동의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함
-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운영·지원하는 대전시 주민공동체 사업을 구심점으로 성평등 교육 대상 발굴 및 실시
  - 주민공동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의 실시 및 중요성 환기와 지역 주민

공동체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위한 협업 관계 구축

-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커리큘럼의 부분 과정 형태로 진행
- 지역에 활동하는 주민공동체 발굴 및 교육 실시
  - 자치구 및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주민공동체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 의뢰 신청 접수
  - 대전시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연계하여 진행

### 3. 성평등 교육 공급 서비스 향상 지원

#### 1)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청소년이 익숙하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매체와 결합하는 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함
  -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청소년을 위해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해야 함
  - 성평등 내용이 반영된 웹드라마를 만들거나 웹툰 작가와 협력하여 그들의 작품 내에 관련 이슈들을 등장시킨다든지 현재 청소년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루한 양성평등 교육’을 탈피하는 방식이 요구됨(최윤정, 2019)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는 기존 청소년 대상 웹드라마와 영상 제작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페스티벌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내용
  -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이 가능한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대전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평등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 웹드라마 등 미디어 제작에 참여할 학교 모집 및 선정
  - 주제 선정과 시나리오 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젠더 전문가와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전문가가 공동 멘토로 참여
  - 완성물 및 제작 과정 영상, 제작 후기 등을 온라인 게시를 통해 공유 및 확산
- 추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 기대

#### 2) 성평등 학습연구회 운영·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성평등 학습공동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성평등연구회’와 같이 이전부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성평등 관련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관내 초·중·고등 각 1교에 『양성평등교육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원 주도의 동료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했으나, 2020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대전광역시 학령기 대상 성평등 교육 실태 조사』에서 양성평등교육연구회에 참여했던 교사는 연구회의 지속적 운영이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을 강조함
-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도 개론 수업과 의무 이행에 치중된 직무연수, 보수교육 등을 통한 교사 및 강사 대상 성평등 교육에서 탈피하고, 교사 및 강사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육 공급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드러남
  - 대전의 경우도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해 모이고자 하는 교육 공급자들을 지원해야 함
- 초·중·고등학교 교사, 지역 내 성평등 강사, 젠더 전문가들이 연구회를 형성하여 함께 성평등 교육 내용을 연구하고 실현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해갈 수 있음
- 사업내용
  - 대전시 관내 학교의 교사 및 성평등 강사 대상 참여자 모집 및 선정, 팀별 연구회 운영비 지원
  - 유아부터 초·중고, 성인 대상 성평등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성평등 주제의 수업 개발, 실험, 팀별 정해진 주제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
  - 성평등 주제의 수업 개발하고 실습하는 등 유의미한 성평등 교수법 개발
  - 젠더 전문가 멘토의 매칭을 통한 전문성 향상 지원
  - 결과 발표 워크숍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장려
- 자발적 토론과 발표를 통한 교수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 및 의식 증진과 학교 내 성평등 실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 3) 2030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여 중도 포기과 강사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주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인 것으로 나타남
  - 전문성을 확보한 20대와 30대 성평등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사업 기획하고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실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2030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했으며, 약 4개월 간의 양성 과정을 통해 교육 활동가로서 자기 도구를 만들고 성인지 역량을 제고함
  - 『2030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활동가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고자 『성평등 ASMR』 교육을 기획, 2030 성평등 교육 활동가들과 진행함

○ 사업내용

- 대전시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과 대전여성가족원이 협업하여 '2030 대상 성평등 교육 활동가 과정' 개설
  - 대전여성가족원 내 교육장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강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여성주의 모임·동아리·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참가자 모집
- 지역 젠더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과정 개발
- 참가자 대상 교육 만족도 및 수요 조사 실시해 추후 양성 과정 개선 사항에 반영

○ 대전시는 위에 언급된 청소년 성평등 동아리 운영·지원과 연계하여 청소년 동아리 멘토로서 양성된 2030 성평등 교육 활동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2030 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신청 방법**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기재된 링크로 제출

**신청 일정**  
신청기간 4월 20일(토) 24:00  
결과발표 4월 22일(월) 18:00

**수강료**  
전 강좌 무료

**문의**  
02. 312. 0872

**신청 기준**  
① 우선 선발 계명, 영상, 사진, 몸 활동 등 자신만의 강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② 아동, 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 계획이 있는 사람  
③ 여성학 혹은 여성주의 관련 수업을 1학기 이상 수강한 사람 (아동학반 및 영어 실버스쿨 등 제외)  
④ 여성주의 모임, 동아리, 단체 활동을 1년 이상 경험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프로그램**  
1. 기본과정 일시 4/24-7/10 매주 수요일 19:00-21:30 / 장소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4월 24일(수)	1강. 오리엔테이션 : 교육활동가로서의 자기탐색
5월 2일(목)	2강. 강의설계 워크숍
5월 8일(수)	3강. 페미니즘 인식론
5월 15일(수)	4강. 의자와 함께 힘으로 맞서는 방법
5월 22일(수)	5강.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 한국여성운동사
5월 29일(수)	6강.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 세계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와 흐름
6월 5일(수)	7강. 왜 지금 페미니즘인가
6월 12일(수)	8강. 심대 색수염리더
6월 19일(수)	9강. 성교육에서 성평등교육까지
6월 26일(수)	10강.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재
7월 3일(수)	11강. 미디어와 젠더
7월 10일(수)	12강. 여성주의 교육방법론

강사: 김남숙(숭실대 교육대학원 교수), 엄혜진(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한채윤(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지은희(前 여성가족부 장관), 이창주(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대표),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김백애리(여성학연구자), 박현이(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최현희(초등학교 교사), 손희정(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원), 추후 공지

\* 5/2(목), 5/8(수) 교육장소 변경 :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2. 페미니스트 페디고지 워크숍 일시 8/20(화) 09:30-19:00, 8/21(수) 09:30-16:30  
장소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  
내용 UN 젠더트레너 훈련과정 페디고지 워크숍  
강사 황금명윤 (같이교육연구소 대표)

3. 심화과정 일시 8/24(토), 9/7(토) 09:30-19:00, 9/19-10/16 매주 수요일 19:00-21:30  
\* 참가비(10만) 제외  
장소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용 강의 시연 및 코칭/칭찬사제 워크숍 등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후원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구

[그림 5-1]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2030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 4. 성평등 교육 공급 체계 개선

### 1) 영유아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구 도서관 운영

-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성평등 교육은 체험 및 참여형 교육 방식이 필수적임을 제시함. 그러나 예산상의 한계로 체험 및 참여형 교구 개발 및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을 지적함
- 이미 개발되어 우수성이 인정된 교구와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우수 교구교안 대회 및 공모전 개최’를 통해 발굴된 교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교구 도서관’ 운영을 제안함
- 사업내용
  - 교구 활용이 가장 많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 대여 서비스 운영
  - 대전시는 대회 및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영유아 대상 우수 교구 제작 및 활용 방법 안내서 작성
  -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영유아 대상 교구 도서관 서비스 마련
    - 장난감 도서관 대출 현황 및 예약 가능한 사이트와 연동하여 교구 도서관 대여 포털 사이트 구축
-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성평등 교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영유아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개발 및 구입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해당 교사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
- 영유아 성평등 교구 도서관은 추후 초·중·고 학령기 대상으로 발굴된 우수 교구를 지역 내 도서관과 함께 서비스 구축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5-2] 경남 수학문화원 수학교육 교구 대여 운영 사이트

## 2) 성평등 교육 신청 양식 개발과 보급

-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들은 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의 상황은 수강자의 수강 태도와 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의 목적과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함
- 그러나 교육을 의뢰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의 교육 신청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의뢰를 받는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의 강의안 준비 과정과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전 교육 신청 제도의 공식화가 요구됨
  - 교육 신청 목적, 대상 등 교육 현장의 특성을 사전에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음
- 사업내용
  - 성평등 교육 지원기관은 [표 5-1]과 같은 강의의뢰서를 개발하고 작성 방법 및 예시 첨부하여 교육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활용하도록 함. 또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공식적인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전시청 홈페이지 공식 게시 및 안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배포 및 알림
  - 대전시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알림 협조 요청
- 신청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화된 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 효과성 증대

[표 5-1] 성평등 교육 강의의뢰서(샘플)

## 강 의 의 료 서

교육 요청기관 일반사항	기관명 : 담당자 성함(직위) : 연락처 :			
강의 희망 과정 및 주제	과정 : 주제 :			
강의 희망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강의시간 : 시간)			
수강 경험	관련주제 교육수강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관련교육 수강 횟수	( )회
강의장소	장소(연락번호) : 위 치 :			
교육장 환경	칠판		컴퓨터 및 노트북	
	마이크		기타 교육매체	(빔프로젝터 등)
	※ 구비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출강시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교육대상 ※ 별도첨부가능	소속(학년)		인원	
	평균나이		성별	남 명, 여 명
<input type="checkbox"/> 교육대상 소개(의식수준, 분위기, 기존 교육경험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을 하게 된 취지, 목표, 강조점 등				
<input type="checkbox"/> 강사에게 요청하는 말씀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의에 참고할 사항				

## 참고문헌

- 김선희 외(2010), <경기도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실태 및 표준교육안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송이(2019),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성평등의식 실태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종환(1995), “생애주기에 따른 대도시 주민의 여가활동유형 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인 외(2006), <성 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김진화 외(2006), <양성평등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부산광역시여성센터.
- 박소연 외(2018),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박은혜 외(2004), <생애주기별 남녀평등의식 교육의 기본방향 연구 및 유아기 평등의식 프로그램 개발>, 여성부.
- 배유경(2015),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제희(2019), <경북 청소년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안상수 외(201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I):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외(2012),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V): 초중등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엄혜진(2019),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효과: 젠더 규범의 재/생산, 위험한 성평등교육”, <페미니즘 연구>, 제19권 1호, 51~90.
- 윤소영 외(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소영(2010),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4호, 103~115.
- 이나영 외(2020), <모두를 위한 성평등 공부>, 가나문화컨텐츠.
- 이수연 외(201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이수연 외(2016), <양성평등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지인 외(2019), <대구시 공공기관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이화진(2018),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 외(2019), <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역컨텐츠 개발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희수 외(2002),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실태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 기초통계 자료 확보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수정(2016),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광주여성재단.
- 임수정(2017), <성평등교육 표준강의안>, 광주여성재단.
- 장휘숙(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권 4호, 109~126.
- 정미라(2011), “유아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을 위한 가정-유치원 상호 협력 중심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연구>, 제31권 4호, 201~228.
- 정민승 외(2017), <생애발달과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옥분(2019),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조영주 외(2018),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윤진 외(2017), <충청남도 성평등교육 표준안 개발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조자경(2017), <평등스쿨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 성평등교육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혜진(2013),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평생교육 실태 점검과 개선 방안: 대전양성평등강사 양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주혜진(2014), <성평등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대전세종연구원.

주혜진 외(2020), <대전시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자료집: 고등학생 양성평등 동아리 편>, 대전세종연구원.

최윤정 외(2019a),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윤정 외(2019b),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 교육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인기>

황창연 외(2006), <성인기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홍미영 외(2010), <부산지역 성평등교육 현황분석 및 교육 강의안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선영 외(2012),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권수현(2018), '성 평등한 문화 생태계와 교육 구성원의 역할', <교육정책포럼>, 300호, 한국교육개발원.

민무숙(2018), '성 평등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 <교육정책포럼>, 300호, 한국교육개발원.

이나영(2018), '페미니즘 교육의 현재와 미래1: 성평등 전환기, #MeToo 운동의 과제', <젠더리뷰>, 제5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경희(2004), '인구 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제7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교육부(2015.1),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부(2015.3.),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학습자료

교육부(2020.3.2.), 2020년 교육부 업무계획

대전광역시(2019), 2019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대전광역시(2019.4.), 2019년~2020년 성인지 정책 기본계획

대전광역시(2020), 2020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대전광역시(2020.3.10.), 2020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대전광역시교육청(2020.1.1.), 2020년 주요업무계획

대전시광역시교육청(2020.1.), 2020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대전시광역시교육청(2020.1.), 2020년도 학생생활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전시광역시교육청(2020.2.), 2020년 학교 성교육 추진 계획

대전시광역시교육청(2020.3.), 2020년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 계획

대전시광역시교육청(2020.3.), 2020학년도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계획

대전시교육청\_2020년 유아교육운영계획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b),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2019), 시민사회 성 주류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젠더교육 매뉴얼

여성가족부(2018.1.), 2018년~2022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2020.1.), 2020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 용동초등학교(2013),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체험중심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형성

통계청 보도자료(2013.11.18.), 생애주기별 주요특성 및 변화 분석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기초연금법』 법률 제16868호, 2020.1.21., 일부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
- 『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1호, 2018.12.11., 타법개정.
-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332호, 2019.5.15.,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49호, 2018.12.24.,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145호, 2015.12.18., 전부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72호, 2018.10.15.,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12.28.,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5426호, 2020.2.7., 일부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0호, 2018.3.13., 일부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96호, 2020.1.29.,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2019.1.15., 일부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985, 2018.12.18.,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2020.2.4., 제정.
-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http://seoulgenderequity.kr>